

15분 도시 시대 파리생활

Carlos Moreno (파리 소르본대학교 비즈니스스쿨(Paris IAE) 교수 겸
기업가정신·지역·혁신 연구소(ETI) 학술위원회 의장)

■ 파리의 도시생활에 대한 재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관측되는 도시의 성장은 도시조직, 도시의 생태발자국,¹⁾ 농어촌 지역과의 관계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근본적인 도전과제로는 에너지, 식생,²⁾ 물, 공급, 이동성, 물류, 쓰레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파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파리는 복잡한 도시이며, 파리에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중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 자체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파리는 기후변화, 생태학적 전환, 생활방식의 변화, 도시 및 대도시 간의 경쟁 및 협력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파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민첩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 도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와 안녕 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공유재를 구축하고 용도(uses)를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비전에 기반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이며, 도시

* 이 글은 Moreno, C.(2020)의 *Urban Life and Proximity at the Time of COVID-19* (Editions de L'Observatoire)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1) 편집자 주: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소비하는 자원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로서 헥타르(ha)와 같은 토지 측량 단위로 나타낸다.

2) 편집자 주: 식생(vegetation)은 지표면의 일정 공간 안에 생육하는 식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에서의 삶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연계의 확대와 가치창출, 도시 사회기반시설의 재창안, 그리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기술혁명에 대한 의존이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도전적인 보건위기 속에 무참히 내던져졌다. 역설적인 점은 이러한 전 세계적 위협을 통해 21세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도시가 가진 힘이다. 도시생활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처음으로 우리는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리듬의 생활 방식인 또 다른 사회성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후변화 및 폭염으로 인한 기후변동의 가시적인 영향, 도시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공해, 자연의 위치, 물, 생물다양성 등의 문제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는 향후 수년간 반드시 치르게 될 도시전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지구상의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파리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 및 도시공간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시 이주의 주된 원인인 우리의 이동성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일일 것이다. 교통수단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미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보건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 계속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 : 우리가 살고 싶은 파리는 어떤 공간인가?

도시밀도와 그것이 우리의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용도(uses), 근접성 및 탈이동성을 기준으로 도시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대응해왔다. 우리는 도시시간론이 제기하는 문제인 우리 삶의 리듬을 중심에 두었다. 근접성의 도시를 의미하는 15분 도시를 통해 우리는 파리가 방대한 규모의 장소 네트워크가 되어 유용한 시간이 곧 생활시간이 되길 바

란다. 그것은 생활하고, 소비하고, 일하고, 도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돌아다니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도시를 탐색하고, 도시를 발견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시설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기능, 이용자 및 고객이 변경될 것이다. 이러한 근접성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 이웃, 친구를 위한 시간을 되찾고, 가장 취약한 대상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접성의 도시는 시민을 도시공간 및 시간 모두와 조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세 가지의 근본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더 나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구와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15분 도시인 우리의 도시 파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시의 공간과 자원, 그리고 모든 형태로 도시 자신을 표현하는 활력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력은 파리의 거리, 광장, 정원, 공원, 은행, 대로뿐만 아니라 벽, 운동장, 문화공간, 야외무대 등에서도 표현된다. 도시는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 즉 살아가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와 같은 민감한 영역들을 통해 우리 눈 앞에 구현된다. 하지만 파리 여성과 남성의 소중한 시간인 생활시간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짧은 이동거리의 도시가 평화로운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핵심적 요소라고 믿는다. 그것은 자원과 서비스가 항상 집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기능, 주택, 일자리, 식량의 공급, 교육, 안녕, 보건 및 여가에 접근할 때 그 둘레길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파리에서 우리는 보건위기로 인한 제약에 특히 잘 대응하는 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유대를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인 군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도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근접성의 도시 파리이며, 이러한 도시는 짧은 이동거리로 기본적인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되기 위해 좀 더 공유되고, 접근하기 쉽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공간 속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시간 이동을 피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설정한 도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활동적인 이동에 기반한 근접성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투쟁, 도

시건강의 보존 등과 도시에서의 생활방식 간에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다중기능적 특성을 대면 방식이나, 필요한 경우, 디지털 기술로 제공하여 이러한 특성에 접근하는 데 요구되는 이동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구축된 기존의 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이 그들의 근린지역과 최적화 방안 및 지역자원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방법을 발견함으로써 근접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만남, 뒤섞임, 분리나 차별에 대한 투쟁, 상호부조, 연대, 공유, 타인에 대한 돌봄 등을 촉진하는 사회적 혼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근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취약계층이 근린지역의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기술 간의 하이브리드 형성에 대한 재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도시세계는 파리 시민 대부분에게 우주, 공간 및 시간을 의미한다. 파리와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글로벌 도시이자 도시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대도시 및 거대도시의 리듬과 생활방식에 젖은 도시문화에 이미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년기와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도시세계에서의 삶이 공존한다.

평방미터당 실리콘/알고리즘 비율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술중심적 접근방식과는 달리, 혁신에 대한 접근방식과 함께 도시 지능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다. 도시생활을 발전시키고,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재발견하며, 유용한 시간과 생활시간을 회복한다는 것은 재창안될 이러한 근접성의 공간에서 새로운 용도를 제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받아 진행 중인 기술혁명에도 기여한다.

도시 전환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전과제는 평화롭고, 다중심적이며,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과 인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생태학적,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술은 이러한 전환을 달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21세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바이오시스템,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 4대 주요 기술혁명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혁명은 금세기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며, 이제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디지털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현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차원은 21세기 도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데, 이는 편재성 또는 언제, 어디서나, 영구적으로 기술적 연결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공개 데이터, 디지털 지도 및 위치추정 기술 간의 융합과 새로운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지식의 원천 및 사회적 관계를 맺는 매개체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지역적 환경에 투입된 데이터는 에너지를 동원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용도(uses)를 창출한다. 주문형 운송, 차량공유, 복합이동,³⁾ 분권화된 에너지, 문화유산 개선, 공생을 위한 도시 공용공간, 개인 맞춤형 공중보건, 제3 및 제4 연령기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온라인 대중 교육, 문화·예술·여가를 위한 열린 공간, 열린 거버넌스 제도하의 참여민주주의, 협업정보체계 등은 오늘날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다핵도시인 지방도시에서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 줄 서비스의 일부 예이다. 도시이론가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온갖 형태로 어우러지는 근린지역의 살아 있는 도시를 지지했다.⁴⁾ 그녀는 인위적인 분리로 이루어진 기능주의적 도시관에 반대했다. 거리에는 지켜보는 눈이 있으며, 지속적인 현존은 도시 사람들의 심장과 함께 도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신호였다.

15분 도시를 통해 우리는 파리에서 다형적 사회기반시설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초목이 우거진 평화로운 거리와 공공선의 장소를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쇼핑을 하고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다중 서비스에 접근하며, 학교를 근린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있게 하며, 모두에게 개방된 시민용 키오스크⁵⁾를 개발하고, 오후에는 나이트클럽을 체육관으로 전환하며, 영화관을 언어학 워크숍 장소로 활용하고, 극장을 프랑스어 학습을 위한 교육훈련 장소로 전환하며, 스포츠센터

3) 편집자 주 : 복합이동(multimodal mobility)은 이용자들이 다수의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이동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4)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 Random House.

5) 편집자 주 : 키오스크(kiosk)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이다.

에서 개인교습 활동을 주최하도록 하고, 지역상권에 상품 수리센터를 만들며, 예술 플랫폼으로 예술과 문화가 살아나는 거리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과 멀티미디어를 통해 역사적 기록과 문화 유산을 되살리며, 음악 키오스크를 개설하고,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가, 그리고 배우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를 밖으로 불러내어 그들이 만나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리가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한 채 서둘러 통과하는 익명의 장소가 아니라 교류, 창조, 전파 및 사회적 혼합의 방대한 공간이 되도록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은 시민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참여형 도시이자 지원형 도시이다.

이러한 근접성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종종 난잡함이 존재하는 우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회복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거리의 끝에서 심장을 가진 인간을 발견하기 위해 밀집된 도시에 인간적 척도로 유기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표현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15분 도시의 강점이다.

“15분 도시”와 “30분 지역”은 삶의 질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또 다른 생활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방식이다. 도시와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력은 다중심적인 삶의 회복력, 도시의 모든 측면에서 근접성을 실질적으로 재발견하는 회복력, 짧은 이동거리의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의 회복력, 다극체제를 가진 지방과 지역의 회복력일 것이다.

시민근접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디지털 구현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효과적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안의 개발

- 단일 사용자 계정의 생성: 모든 시정 서비스에 대해 통일되고 간소화된 접근이 가능하다.
- “우리 동네에서(Dans Ma Rue)” 앱의 신규 버전: 파리 시민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공용공간의 문제를 서비스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베타 버전(월 3천 건 신고)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완전히 개선된 앱을 파리 시민에게 제공했는데, 이를 통해 파리 시민은 공용공간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가구⁶⁾나 서비스의 새로운 임지를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도시를 공동으로

6) 편집자 주: 도시가구(Urban furniture)는 건물과 가로수를 제외한 외부공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총

디자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 공개혁신 프로그램(데이터시티)이나 공동가치창출 워크숍(밋업 및 해커톤)에 시 차원에서 참여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거나 시정 서비스(파리앱)의 홍보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공개 배포함으로써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질 새로운 비시정(non-municipal) 서비스를 생성 및 개발한다.
- 소비보다는 창조를 중시하는 디지털 기술에 관한 비전을 토대로 젊은 파리 시민을 위한 비교과 디지털 활동을 개발한다.
- 파리는 멀티미디어 워크숍에서 컴퓨터 코딩 놀이학습에 이르기까지 300개 이상의 비교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소셜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감 있는 사용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좀 더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를 제안한다.

파리의 노동환경에 대한 재고

노동환경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이 부족한 근린지역에 사무공간이 추가됨으로써 사람들이 집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코워킹⁷⁾을 위한 지역적 허브가 구축되어 있어서 필요시 사람들이 회의를 위해 함께 모이고 협업할 수 있다.

도시는 분산된 주거공동체로 둘러싸인 대규모 고용 중심지로서의 현재의 역할에서 벗어날 것이다. 대신 사용자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많은 경우에 사무공간을 축소하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상점들이 더 많이 비어 있게 됨에 따라, 도심 생활로의 전환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심지어 대규모 도시환경에서도 기업의 본사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는 빼곡히 들어선 책상이 본사 사무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본사는 목적에 따라 설계되고 회의실, 사회적 영역, 협업 및 학습공간이 적절히 혼합된 노동환경으로

칭하는 용어로 가로시설물, 옥외가구, 사이트 퍼니처, 환경장치물 등으로도 불린다.

7) 편집자 주: 코워킹(co-working)은 같이 모여 함께 일한다는 의미로 개방형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정보 및 기술 등을 나누며 함께 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구성될 것이다.

파리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를 위해 혁신적이며 자극적인 환경을 갖춘 지능형 대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다. 파리는 유럽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 있는 수도로서 이미 3천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혁신의 최첨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젊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을 매일 개선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스타트업에 대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공세적 정책에 힘입어 현재 파리에는 30개의 디지털 제작 전용 팹랩⁸⁾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제3의 공간, 기타 제작공간 등 수도에 있는 혁신공간의 수가 100개를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파리는 5만 5천 평방미터(m²)의 혁신 활동 전용 부지를 조성했으며, 총 10만 평방미터가 넘는 이러한 공간이 혁신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파리에서 15분 도시 개념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용공간이 스스로를 재창안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시도해야 했다. 실제로 많은 호텔에서 로비 한 칸에 작업공간을 설치하거나 객실을 하루 동안 사무실로 임대함으로써 코워킹 공간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해결책은 근접성을 활용하여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위치한 코워킹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실제로 코워킹 공간이 점점 더 제3의 공간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제 코워킹 공간은 작업을 위한 공간 그 이상이며, 스포츠룸, 회의장, 게임룸 등 수많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다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파리는 교외와 접해 있는 파리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야심 찬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의 호(The Arc of Innovation)”로 불린다. 혁신의 호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적인 10만 평방미터의 공간에 창업보육센터 및 새로운 사업의 설계와 창업을 위한 기타 장소가 조성될 것이다. 순환도로 양쪽을

8) 편집자 주: 팹랩(fablab)은 제작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의 약자로 일종의 개방형 제작 플랫폼을 의미한다.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기반 장비가 구비된 제작공간인 팹랩은 지역사회의 시민에게 개방되어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 파리의 동편까지 호 모양을 형성하는 광대한 지역은 현재 영감을 주는 열광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파리와 수도권 재개발 프로젝트인 그랑파리 메트로폴 프로젝트에 속하는 지역의 그 어느 곳보다도 창조산업, 디지털 부문, 사회적 및 연대에 기초한 기업이 정신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또한 이곳은 대도시의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⁹⁾ 코워킹 공간, 펍랩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공유 정원, 소규모 농장, 재활용센터, 문화적 불모지 등 시와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바로 이곳이다. 혁신의 호 프로젝트에 속하는 지역에는 주로 직업이 없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년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높은 실업률 및 상대적인 저숙련 수준으로 인해 사회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호 프로젝트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창의적인 역동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트램의 연결, 내부 순환도로의 개발, 파리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Grand Paris Express), 관문의 광장으로의 변경,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개발사업 등의 도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의 호 프로젝트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장소의 부상과 이해관계자의 출현을 통해 이렇게 새롭고 좀 더 협업적인 형태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대도시권의 동서 간 균형발전이라는 좀 더 큰 사안의 일부이다. 동쪽에는 거주지가, 서쪽에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통근으로 인해 도시 신진대사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혁신의 호 프로젝트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의 호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의 호 체계 내에서 이행되는 프로젝트는 주민과 근린지역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경제발전과 여러 활동의 창출 및 지역고용에 기여함으로써, 호(Arc) 공동체와 지역적 파트너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근린지역의 활성화 및 프로젝트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혁신은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건축적 혁신 또는 용도(uses)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9) 편집자 주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s)는 민간부문의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신생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을 가리킨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환영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이중적인 역동성으로 근린지역에 점진적인 발전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은 새로운 장소의 부상, 디지털 혁명의 성과, 생활방식의 변화(제3의 공간, 혁신 플랫폼, 팸랩, 혁신적 물류 플랫폼 등)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입지(주택, 상점, 호텔 등)를 포함한 도시의 입지를 재창안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공유경제, 순환경제 또는 협업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용도(uses)와 패러다임의 출현을 촉진하며, 이는 도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 결론

15분 도시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며, 각 도시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파리는 글로벌 도시이자 동서 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 주택, 일자리 측면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파리 시민이 평등한 도시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5분 도시라는 발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파리 지역 전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이 15분 도시를 구성하는 ‘공통 기반’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5분 도시는 또한 상점의 적응을 수반한다. 목표는 지역 상점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파리산 제품(Fabriquer à Paris)”이라는 라벨(상점과 식품관, 문화상점, 재활용 센터, 공예, 안내서비스, 제조공간 및 도시물류)을 통해 지역 내 생산과 근거리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다.

물론 구역 주민의 의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곳은 그들의 근린지역이므로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리는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에서 개입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시는 구역 행정당국과 함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 근린지역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근린지역의 자치구 의회와 함께 지역에 있는 기존의 또는 새로이 조성될 공영·준공영·민간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주민과 그 지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취합하는 상담도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구역별로 특수한 신규 시설을 체계적으로 건립하거나 구축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경우, 단지 하나의 활동보다는 여러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소를 전환하는 문제에 더 가깝다. 학교, 문화 및 참여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이러한 공간 전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5분 도시라는 개념은 주민의 삶과 도시를 단순화함으로써 주민의 안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건 및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성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 Random House.